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5.07.23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◦ 집행위 경쟁력기금, 연구혁신총국과 성장총국이 공동 운영할 것(7.21)

- 집행위는 연구혁신총국(DG RTD)과 성장총국(DG GROW)이 4,100억 유로의 유럽경쟁력기금(ECF)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발표. 자하리에바(연구 담당)와 세주르네(산업전략 담당) 집행위원이 감독
- 연구혁신총국의 역할은 공동연구에만 국한되지 않으며, 집행위는 새로운 기금을 통해 기초연구에서 시장 혁신까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, 이를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정책 중심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
- 그러나 호라이즌 유럽 관련 규정과 ECF 규정 모두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세부 내용이 부족해 불확실성이 존재
- 제안서는 ECF가 집행위와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집행될 것임을 언급. 이는 일반 위원회와 4개 각 우선순위 분야(청정전환·산업 탈탄소화, 보건·바이오경제·생명공학, 디지털, 회복력·국방·우주)에 해당하는 위원회, 추가로 회복력·우주·안보산업 관련 위원회로 운영 예정
- 이 위원회들은 ECF 워크 프로그램을 결정하며, 호라이즌 유럽 공동연구 공모에 전용 섹션이 마련될 것
- 차기 호라이즌 유럽과 ECF에 대한 최종 협상은 EU 정부와 유럽의회 간 수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, 2028년까지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

◦ 집행위의 연구 프로그램 제안에 환영 목소리, 그러나 모호성에 대한 우려 지속(7.17)

- 유럽 연구계는 1,750억 유로 규모의 호라이즌 유럽 후속 프로그램 제안을 환영하나, 그러나 ECF와의 ‘밀접한 연계’가 프로그램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, 단일 규정집 및 립섬펀딩 방식 확대가 실제 간소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

◦ (기타) ▲호라이즌 유럽 ‘문샷 프로젝트, 호라이즌 유럽의 모든 부분과 연계 가능(7.22) ▲호라이즌 유럽, 향후 모든 분야에서 ‘이중용도’ 기본 적용될 것(7.17) ▲유럽 연구장관, 코펜하겐에서 핵심 기술과 차기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논의(7.17)

※ 차기 호라이즌 유럽 및 ECF 예산 구조(제안안)

구분	현재 HE예산 (억€)	차기 HE 제안예산 (억€)	주요특징
Pillar 1 기초연구	250	440	ERC·MSCA 대폭확대, 기초연구강화
Pillar 2 협력연구	535	758	경쟁력(682 억) + 사회분야(76억)
청정전환·산업탈탄소화	-	253	산업탈탄소화 중점
보건·바이오경제·생명공학	-	196	보건·생명공학·농업통합 강화
디지털리더십	-	168	디지털·산업·우주 연계
회복력·안보·국방·우주	-	64	안보·방위 중심 확대
사회분야	-	76	이민·허위정보·민주주의 등 대응
Pillar 3 혁신	136	387	EIC 예산 3배 확대, 스타트업 지원
Pillar 4 ERA	34	162	연구 인프라 및 참여확대국 지원 확대
HE 총 예산	955	1,747	

ECF 예산 항목	예산(억€)	세부내용
청정전환·산업탈탄소화	262 + 253	ECF 자체(262억) + Horizon 연계(253억)
보건·바이오경제·생명공학	204 + 196	총 400억 유로
디지털리더십	515 + 168	총 683억 유로
회복력·안보·국방·우주	1,252 + 64	총 1,316억 유로
기타(InvestEU, SME, 기술인력 등)	110	비부문별지원
ECF 총 예산	4,100	호라이즌 유럽(1,750억) + 기타(2,340억) 포함